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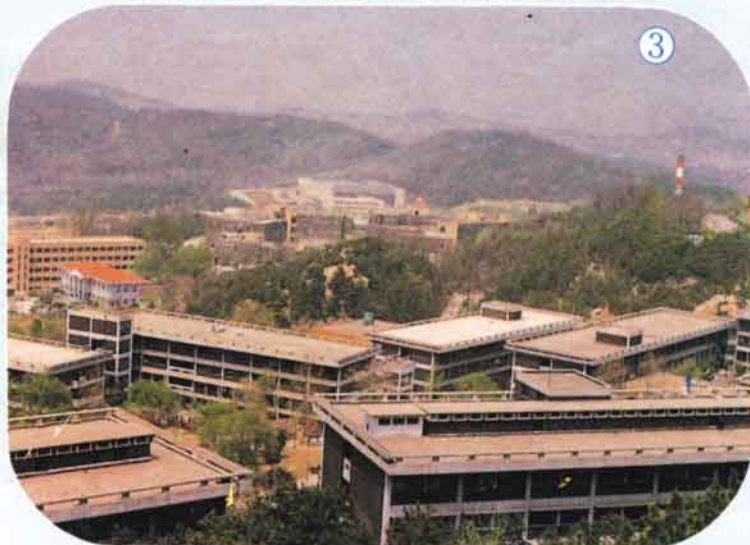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母校와 함께, 同門과 함께



生動感 넘치는 冠岳의 5월 : 싱싱한 푸르름에 휩싸인 관악캠퍼스는 學問의 殿堂으로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다. 풀 한포기에도 애착이 가는 母校의 분위기에 同門들은 무한한 愛情을 보내고 있다. (사진) ① 大學本部 ② 圖書館 앞뜰 ③ 教授會館에서 내려다본 캠퍼스全景.

冠岳春秋

新綠의 도정이 5월冠岳에 생생하다. 달콤한 꽃향기에 취해있기 보다는 밝은 태양 아래 나뭇잎을 펼치고 새순이 자라오르는 크고 작은 가지들의 푸른 행록이 캠퍼스의 안팎으로 싱싱하게 장식해 가는 實相. 그런 가운데 새 생명은 일터되고 새 열매는 성숙을 거듭한다. 낭만에서 실제, 감성에서 의지, 환각에서 정체가 확인되는 이런 계절의 색깔에 자극되면서 우리들 가슴속에 희망이 고동쳐던 서울대의 學窓시절 그것은 오늘도 해맑은 아기의 얼굴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들에게 絶望과 陰影은 없었다. 태양을 향한 나무를 보면 上向의 의기가 압도되었고, 피어난 장미의 숨을 대하면 생명의 열기를 느꼈다. 調和와 함께 異性과의 사랑이 활짝 그리워지는 인생예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절로 흥얼거려지는 콧노래 리듬에 어울려 창공의 흰 구름이라도 우연히 완연이면 천지의 香簾 모두 가 자기 것인듯한 매력에 젖기도 하였다.

그 名聲 永遠히 푸르기를...

그 래서인지 어느 哲人은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대학」이라고 회상하였다. 우리들에게도 5월은 유독 더 그라해 보인다. 확실히 그 광장엔 20대 청춘들의 감동이 언제나 싹그라들었다. 다른곳에 없는名著나 古典의 탐독으로 옛聖賢들과 靈의인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기라성같은 석학이나 스승으로부터 밤의 정신적 인격적인 광채가 우리네 인생내면으로 아로새겨지기도 하였다.

이미 우리同窓會報에 계속 소개되었던 것처럼 스승들의 명강의는 지금도 천천히 전해진다. 이 무렵이면 서로의 의기가 뭉쳐 꽃구름을 아래서 天下대세를 토로했던 冠岳의 「자하연」과 천문대, 運建의 한촌원과 時計塔, 安養의 수목원 그리고 여러 기념관과 보수회관 교우회관의 인자리는 오늘날 그때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보통서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日省錄, 備邊司등록, 承政院日記, 十七史纂古今通要, 擊蒙要訣같은 奎章閣의 국보급도서나 문화유산은 하나처럼 우리들의 정신과 생활내면에 자랑스런 作用을 하고 남는 것들이었다. 古今의 위대한 魂과 識見을 대하며 역사의 가르침이나 眞理를 섭렵할 수 있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또한 어찌했는가. 先史·渤海시대의 유물은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다. 舊石器·新石器시대의 토器는 선사문화연구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천재화가인 朴 張承業의 꽃과 새그림 병풍화 두루리 傳統畫의 표본이라 할 수 있고, 작가미상의 오성부원군 李恒福의 초상화 또한 조선전기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 밖에도 전통산수화나 花鳥그림을 모은 謙玄神品帖, 鶴林亭·羅隱·影谷·雲谷의 그림이 유려한 四家遺墨帖·李慶胤의 高士望月圖, 李在寬의 巖石亭李權城畫 등은 희약만하여도 心性의 開眼을 느끼게 하는 걸작품들이었다.

그 모두가 화창시절 우리들 정신의 재산이었다. 영혼의 각성제였고 자기 위치의 비약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校友들의 위풍은 날로 당당해졌었다. 전국의 영재들이 총집결하여 꿈을 키우고 푸른 未來를 멀리 바라본 서로의 모습들. 그 어울림속에 발전하는 오늘날의 韓國은 기약해 가는 것이었다. 창으로 진자 인간들이 많았다. 절로 情이 들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품과 수재들이 있었었다.

民主韓國이 세워진지 꼭 40년. 그 사이의 시련과 고난을 모를 사람은 없다. 또 그것이 훌륭하게 극복되어 지금은 先進國의 수준으로 접근했고 2000년대의 雄飛를 바라보며 나라와 사회가 민주화의 대전환기를 맞은채 목전의 현실이다.

이런 歷史의 進路를 선택한 주역은 다름아닌 우리 同門들이 아닐까. 경제·관계·경제 문화예술계를 가릴 것 없이 그 대세를 이끄는 인물들은 분명히 서울대인들이다. 그들의 총명과 지혜와 능력은 국운개척의 귀중한 밑바탕이었다. 새사회 새문화 새기적 창조적 원천이며 온갖 大事치려와 전진발전의 전인차였다.

오늘도 그 역량의 비풍은 압도적이다. 내일은 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국내도 물론이려니와 널리 세계의 천지가 그대들의 進出을 더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새로운 도전의 머과 유혹이 생기고 浩然之氣로 인생을 살아가고픈 매력 또한 매력처운다.

5월의 母校像은 15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生動感을 부활시킨다면 어떨까. 주위환경의 모든 생명체들이 성장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내의 精進을 또한 여러 부문에서 발랄한 精進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활력, 이런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모교의 신선한 생명력과 존재성은 위대한 光彩를 발한다. 나라와 겨레의 역사가 빛나고 문명의 所産 또한 그지없이 이어질 것이다. 5월의 서울대학교여! 영원히 푸르라.

在籍의원 3분의 1 육박

法大39・文理大15・商大11명順

명(6명)은 7명에 4명, 14개)은 7명에 4명, 14개)

校木 20 年 植樹

母校支援事業 일환

◇ 기념식수 광경

人閣・當選회원 祝賀宴도 준비

4천2백만원규모 事業확정

大農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4월9일 하오 2시 농대 대청각에서 동문약 1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沈鍾燮 회장과 吳鳳國 등 인사에 이어 전년도의 決算을 승인하고 4천2백만원 규
---	---

모에 달하는 올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대동창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동창회 발간, 지부운동회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사업으로는 장학금을 증액하여 수혜학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沈鍾燾동창장은 柳順奭 전 농대학장에게 학장재임시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패를赠送했다.

한편 농대동창회에서는 오는 5월 중순경의 새삼부자잔치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한 박정호(朴正浩) 그리고 지난 4·26추석에서 국외의원에 입선된 李榮文(民正·경기 이원), 鄭一泳(共和·충남 천안), 등문예대

한 추하연을 가짐계획이라고 한다.

會長 資格요건 **첼페**

會員加入 규정도 대폭 완화

新聞大院

신문대학원 동창회(회장 金太文)는 종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부여해 오던 회장 피선자격을 앞으로는 회원이면 누구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시카고

(三) 동원(民主·釜山·西區)
의원 중 최다선으로 기록하고 있고 7선으로는 박
凌圭東源(民主·大邱·東
區), 6선에는 金鍾泌東
(共和·忠南·扶餘)과
蔡汝植東源(全國區)이,
5선에는 金在淳東源과黃
路周東源(民主·慶南·昌
原)이 관록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4선으로는 朴
容寓(民主·서울·城東內
·南載熙(民主·서울·江
西乙)·朴燦鍾(無所屬·
서울·瑞草甲)·李慈憲(
民主·京畿·平澤)·鄭石
謨(民主·全國區)·申喆
均(共和·全國區) 등들이
포진하고 있다.

한편 선별로는 전국구에
서만 李潤子·金長淑등은
이 직능대표로 民主黨공
천을 받아 의정에 진출
했다.

[관련記事 6, 7면]

이날 총회에서는 또인
물인 특수교육차장을
수한 사람 중 본인이 회
맹할 경우 회장단의 추
천을 거쳐 회원이 될수
있도록 회원자격요건도크고
개원화시켰다. 이로써 4
백60명의 현 회원은 앞
으로 6백명 선으로늘어
늘어난 전망이다.

한편 金太文회장은 이
새로운 박사학위를받은
이중우 동문(소년초
선생부) 편찬부장(전지하
박사), 이경운 동문(인민
하대 교수, 정치학 박사
과 김원태 동문(전남대
교수, 정치학 박사)에게
각자 박사학위 취득 기
념패를 증정했다.

同窓會館의 完工과 합
本會에서는 15日 同
門이 다함께 참가하여

電算資料

조속送達기대

電算資料

조속送達기대

올 첫 理事會 개최
事業計劃 予算案 승인

본회의(支那本部會議)는 3월 5일(金) 오후 7시부터 뉴코리아하우스에서 일월 1이사 등 38명이 참석하여 가운데 금년 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事務處에서는 이윤우 해동장들의 정회인인 이철상이 빠진 등의 電算化될 수 있도록 정동문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해 마치 않으며 아직까지 同密會員기틀을 보내주지 않은 同門에서 는 누구도 이달 말까지는 동창회로 우송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만 동문 모두의 정

會長 資格요건 **첼페**

會員加入 규정도 대폭 완화

新聞大院

신문대학원 동창회(회장 金太文)는 종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부여해 오던 회장 피선자격을 앞으로는 회원이면 누구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校木 20 年 植樹

母校支援事業 일환

본회에서는 지난날 7월 모교 冠岳캠퍼스에 木인 20년생 느티나무 20그루(식가 3백만원 상당)를 식수했다.

冠岳캠퍼스의 造景지원 계획에 따라 본회에서 매년 모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식수행사는 올해로 15년째 맞고 있는데 벌써 1백그루, 3백그루, 278년 매년 서부해안화물 8그루 ▲75년 목백인물 2동나무 4그루 ▲76년 연도별 식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74년 11월 5, 향나무 8그루 ▲75년 11월 10월 2동나무 4그루 ▲76년 11월 10월 2동나무 4그루

金鍾우부총장을 비롯하면 부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체육관 앞에서 거행되었다.

한편, 冠岳캠퍼스에 木인 20년생 느티나무 20그루(식가 3백만원 상당)를 식수했다.

冠岳캠퍼스의 造景지원 계획에 따라 본회에서 매년 모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식수행사는 올해로 15년째 맞고 있는데 벌써 1백그루, 3백그루, 278년 매년 서부해안화물 8그루 ▲75년 목백인물 2동나무 4그루 ▲76년 연도별 식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74년 11월 5, 향나무 8그루 ▲75년 11월 10월 2동나무 4그루 ▲76년 11월 10월 2동나무 4그루

4천2백만원규모 事業확정

人閣・當選회원 祝賀宴도 준비

大農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4월9일 하오 2시 농대 대청각에서 동문약 1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沈鍾燮 회장과 吳鳳國 등 인사에 이어 전년도의 決算을 승인하고 4천2백만원 규
---	---

모에 달하는 올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대동창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동창회 발간, 지부운동회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사업으로는 장학금을 증액하여 수혜학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沈鍾燾동창장은 柳順奭 전 농대학장에게 학장재임시 모교발원예기

여한 공물을 치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농대동창회에서 오는 5월 중순경의 새삼부자잔치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에 취임한 朴正訓(朴正) 그리고 지난 4·26추석에서 국외의원에 입선된 李榮文(民正·경기 이원), 鄭一泳(共和·충남 천안) 등문예대 한 추하연을 가질계획이라고 한다.

藥大道峰支會



◇ 玄永源 회장

국합으로써 그간의國
情勢 및 흐름을 했
다. 또 本會의 인열명
단도 수록 參考토록했
고, 앞으로 會則을 수
록하고 있다.

同會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회원간의親
睦이다. 한결같이 지나
자 나이나 민족 種族
에 의하지 아니하며
임하는 會員의 양이저
자연 친善의 도를 신

이 회장의 실명. 또 그
대다수 회원의
회원명부 발간, 活性化에 적극
환갑지난 元老동문들의 모임

자랑하는 것은 비록 5 회라는 限定的인 면이 있기는 하나 文理大 전체 學科를 망라하여 會員으로서 모인다는 것이 을 갖고 있다는 것이 文理大를 두고 볼 때 學科수는 많은데 비 科學生數는 적어 어느 때는 외물이 없어도 된다. 한편으로 서울大 綜合化에 따라서 校設置令에 의해서 文理大가 人文大·社會科學大·自然科學大 등 3 個大學으로 분할되면서 母體가 자취를 감추었기에 同窓會의 활동은 그히 미미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5 회라는 限定的인 특성을 하나 全體 學科를 망라하여 모인다는 점지 않은 일이었으며, 이점 다른 文理大 總입 學科들로부터 부러움도 전한다. 그리고 玄妙堂은 사회와 일치한 졸업생들을 배출한 현실에서 5 회 졸업생은 선배 어른 격에 속하

「모임 探訪」란에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으면 동창회보 편집실 (전화 702-2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며, 그 선배의 모인
이로써 활발하다는 것
은 후배의 귀감이 되
고, 또 자극제가 될수
있을 것이다.

현 東崇會의 임원진
은 다음과 같다.

▲會長 : 玄永源
▲副會長 : 梁在炫 (단
국대 부총장)
▲總務理事 : 梁垣承 (한국인트랙 대표)
▲理事 : 具平會 (익
키금성그룹 副會長), 金
桂洙 (한국외국어대 교수)
金順男 (아주공대 교수),
李鍾澤 (인하대 교수),
吳熙熙 (충남대 대학원
장), 白南基 (인문대 사
관 조사관), 連相玄 (삼
성포인팅 사 대표), 林
憲道 (고려사대 명예교
수), 韓憲史 (사), 洪
鍾華 (웅진제지 사장)
▲監事 : 許南植 (세
무사무소 대표)

세미나 열어 최신정보 흡수

藥師會員 50명 親睦을 도모

國) 에게로 넘겨졌고韓	동문은 會의 기록을만	는데 말한 공자를만 남	기었다.	3대 회장으로 선출된	權漢杓은 49년卒. 대	진약은 8년간을장	기진권(?) 하면서 道	峰支會를 오늘도 모범
--------------	-------------	--------------	------	-------------	--------------	-----------	--------------	-------------

한바 있는 文昌基동문
을 선출, 道峰支會가 새
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
게 된다.

文희장은 술을 운영
함에 있어 "規條"에 최
우선을 두고 있다. 거
기에서도 회원들의 慶
弔事에 특히 관심을 쏟
는다. 그 결과 이제 더

년마다 개선을 위한 안건이 세미나와 가지며, 친목을 더욱 하고 있다. 동창회 일을 맡아오

서울대 출신의 意識

향에 대해 '대부분의

해서 어아 유익한 일이 있	위려 아면 되면 고, 참 한으로 있	금. 「 사람을 함상 새로	회 우연에 대해서 도어	다. 회 적인 대 한 참여 를 추구 한	회에 대한 동무들 의적
----------------------------	------------------------------------	-------------------------	-----------------------	-----------------------------------	-----------------------

재 孔命吉동문이 그 뒤
를 잇고 있고, 曹重鉉
동문(72년卒) 삼천의로
이 도봉구 약사회 총
무위원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 藥師公論 주간을
지낸바 있는 韓延豐도
문은 도봉문화의장을
맡고 있고, 姜炯泰도 문

지회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그러한 사이 會員數도 연간 50여명으로부터 늘어났고 동년월의 哀喪事참정가도 물론 세미나와 아우의 죽음에 동참했을 이뿐 아니라, 장례의 일로 전담수한 선장들을 이복했다.

1985년 5월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이로 초대 회장을 역임

영광의 정주사에는 거
의 머리 회령을 한가
진장이 한석화 한가
조과 같이 기쁨과 슬
픔을 나누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한다.
또한 신인영의 개
명투서도 영인 회령의
장부하고 기쁨을 중
상하고 다뜻한 조를
아끼고 영진
同會의 정기총회나매
년 5월 영리근대 2

을대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는
 '아왔기 때문에' 하니까
 '이자가 제일'이라
 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
 문으로만'이라고 부
 면서, 그러나 그것은
 고졸시대에는 통했
 으나 이제는 우리
 반정합 시기가와
 다고 지적하면서 동향

이와 같은 사실은 이의장(李義相)의 문장에 나타난다. 그는 이의장(李義相)의 문장에 나타난다.

새로 開闢하고 있는 新
 世界의 經濟 基盤을
 있는 支會의 支會
 支會가 있을 것으로
 各된다」고 文 회장은
 다 보면서도 支會가
 支會가 支會의 한
 을 한 것이 되는
 회가 될 수 있도록
 육 노 노력하겠다고
 한다.

× ×

70년 農大 農生物學科
를 졸업하고 美米네스
타주립대에서 임업종
학박사학위 취득. 現모
교박사학위 교수로 재
직하면서 先親의 유업
을 계승하고 있다.

▲弟 曙輪 몽문호 : 모
교工大3년 중퇴한 장
로교신사로서 졸업한
美프린스턴신학교에
서 박사학위과정을 밟
고 있다. 목사.

▲妹兄 李貞默(문인) 玄信愛(동문 夫君) 1158
년工大造船工學科를
졸업하고 美버클리대
에서 조선공학박사학위
득. 現浦項工大 副學
長으로 在職.

글씨로 故 玄信圭(동문
一家의 健將과 漢
글씨를 기원한다.

얼굴을 살펴본다

새삼母校의 이미지와 同窓會의 矜持를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4월에 실시된 13대 總選에서 92명의 동문이 국회의원으로 當選돼 同窓會는 慶事란 집안처럼 술렁이고 있다. 거기에 國務總理를 비롯 20명의 同門까지 入閣하고 있다. 6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서울大學의 參與度는 명실상부하게 三府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同門들이 차지한 위치는 사뭇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 당선된 영광의 얼굴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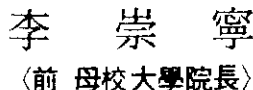
■ 보기 ■
姓名(年令)
出身大學(院)
所屬政黨・職位
出身區
(順位・卒業年度)

 金鍾泌(62) 師範大學(中退) 共和・黨總裁 忠南 扶餘	 朴炳善(62) 49년 醫科大學卒 共和・前議員 忠南 禮山	 朴容萬(64) 49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서울 城東丙	 崔泳謹(66) 48년 法科大學卒 平民・前議員 全國區	 蔡汶植(62) 48년 文理科大學卒 民主・黨代表委員 全國區	 朴浚圭(62) 48년 文理科大學卒 民主・舊共和黨의政界 大邱 東區	 李潤子(60) 46년 師範大學卒 民主・11대議員 全國區	
 李雄熙(57) 工科大學(中退) 民主・前文公長官 京畿 龍仁	 盧仁煥(55) 54년 商科大學卒 民主・前議員 慶南 山淸 咸陽	 金在淳(64) 52년 商科大學卒 民主・생터社理事長 江原 鐵原 華川	 鄭石謨(59) 52년 法科大學卒 民主・前黨事務總長 全國區	 黃哲秀(62) 51년 師範大學卒 民主・前京畿교육감 京畿 始興 果川	 申喆均(64) 51년 法科大學卒 共和・12대議員 全國區	 金泳三(60) 51년 文理科大學卒 民主・前黨總裁 釜山 西區	
 朴忠淳(54) 56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忠南 大田西	 金龍煥(56) 56년 法科大學卒 共和・前財務長官 忠南 大川 保寧	 金奉旭(58) 56년 法科大學卒 平民・12대議員 全北 沃溝	 金東圭(55) 56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서울 江東甲	 趙世衡(56) 56년 文理科大學卒 平民・11대議員 서울 城東乙	 李榮文(55) 56년 農科大學卒 民主・前統代議員 京畿 利川	 朴佑炳(55) 56년 工科大學卒 民主・三陟丹波대교 江原 旌善	 徐廷和(55) 55년 法科大學卒 民主・前內務長官 서울 龍山
 趙昇衡(54) 57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國區	 趙南煜(55) 57년 法科大學卒 民主・三扶士建社長 全國區	 崔珪圭(54) 57년 文理科大學卒 共和・前商工長官 江原 江陵	 李應善(53) 57년 工科大學卒 民主・前科技處次官 江原 洪川	 宋斗灝(60) 56년 醫科大學卒 民主・前神經科學會長 全國區	 金完泰(57) 56년 藥學大學卒 民主・12대議員 忠北 鎮川 陰城	 李珍雨(54) 56년 法科大學卒 民主・前議員 慶北 浦項	 李元滢(55) 56년 法科大學卒 平民・黨研修院副院長 서울 江西甲
 李漢東(53) 58년 法科大學卒 民主・前黨事務總長 京畿 漣川 抱川	 沈明輔(53) 58년 法科大學卒 民主・黨事務總長 江原 寧越 平昌	 南載熙(54) 58년 法科大學卒 民主・黨政策委員長 서울 江西乙	 金塔泰(51) 58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大邱 北區	 李慈憲(53) 58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京畿 平澤	 李相回(53) 58년 文理科大學卒 民主・延大教授 全國區	 吳漢九(53) 57년 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慶北 英陽 奉化	 沈晶求(56) 57년 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仁川 南區甲
 安秉珪(50) 61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慶南 晉陽	 趙庚穆(51) 61년 工科大學卒 民主・黨제2事務次長 全國區	 朴俊炳(54) 60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忠北 報恩 沃川 永同	 申五澈(50) 59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서울 道峰甲	 金宗鎬(50) 59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忠北 槐山	 金長淑(54) 58년 藥學大學卒 民主・12대議員 全國區	 黃秉泰(53) 58년 商科大學卒 民主・黨副總裁 서울 江南甲	 鄭宗澤(53) 58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忠北 淸州甲

第13代 總選서 92명의 同門 當選... 榮光의

 金光一(48) 62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釜山 中區	 康祐赫(50) 62년 法科大學卒 民主·前政務2首席 仁川 南洞區 비서관	 李台燮(48) 62년 工科大學卒 民主·前科技處長官 서울 江南乙	 李相得(52) 61년 商科大學卒 民主·코오롱 商事社長 慶北 迎日 鬱陵	 朴煥太(49) 61년 法科大學卒 民主·前釜山高檢檢事장 慶南 南海 河東	 朴進球(53) 61년 法科大學卒 民主·前慶南副知事 慶南 蔚州	 金泰鎬(53) 61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慶南 蔚山中	 姜信玉(51) 61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서울 麻浦乙		
 李廷武(47) 64년 法科大學卒 民主·大邱百貨店副會長 大邱 南區	 金晉榮(49) 64년 農科大學卒 民主·축산업 慶北 榮州 榮豐	 韓昇洙(51) 63년 行政大學院卒 民主·모교教授 江原 春川	 李相河(51) 63년 法科大學卒 民主·前東亞日報副局長 全國區	 吳有邦(47) 63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서울 恩平甲	 朴實(48) 63년 文理科大學卒 平民·12대議員 서울 冠岳甲	 趙贊衡(49) 62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南 南原	 朴相千(49) 62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南 高興		
 李承潤(56) 65년 商科大學卒 民主·前財務長官 仁川 北區乙	 朴燦鍾(49) 65년 商科大學卒 無所屬·12대議員 서울 瑞草甲	 朴哲彦(46) 65년 法科大學卒 民主·大統領정책 보좌관 全國區	 韓光玉(46) 文理科大學(中退) 平民·前議員 서울 冠岳甲	 李敏燮(49) 65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江原 春城 楊口 麟蹄	 金文元(47) 65년 文理科大學卒 共和·前議員 京畿 議政府	 金德龍(47) 文理科大學(中退) 民主·前총재비서관 서울 瑞草乙	 崔雲芝(60) 64년 行政大學院卒 民主·12대議員 大邱 西區乙		
 張石和(42) 68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서울 永登浦甲	 尹在基(43) 68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忠南 公州	 白南治(44) 68년 法科大學卒 民主·警察大學教授 서울 蘆原甲	 鄭一永(44) 68년 農科大學卒 共和·農場경영 忠南 天安	 姜金植(46) 67년 商科大學卒 平民·成大教授 서울 城東甲	 鄭大哲(44) 67년 法科大學卒 平民·前議員 서울 中區	 許京萬(50) 65년 司法大學院卒 平民·院內總務 全南 順天	 黃珞周(60) 65년 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慶南 昌原		
 李仁濟(39) 72년 法科大學卒 民主·大田地法判事 京畿 安養甲	 黃性均(51) 71년 大學院卒 民主·醫師 慶南 三千浦 泗川	 李協(47) 71년 法科大學卒 平民·黨報主幹 全北 裡里	 李致浩(48) 70년 司法大學院卒 民主·12대議員 大邱 壽城	 吳坦(48) 70년 司法大學院卒 平民·辯護士 全北 全州甲	 辛基夏(47) 70년 司法大學院卒 平民·12대議員 光州 東區	 咸鍾漢(45) 70년 農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江原 原州	 金重權(48) 69년 司法大學院卒 民主·12대議員 慶北 蔚珍		
當選을 祝賀합니다 서울대학교 同窓會 — 會員一同 —				 李哲(40) 88년 社會大學卒 無所屬·12대議員 서울 城北甲	 李海瓚(35) 86년 社會科學大學卒 平民·前인동원총무국장 서울 冠岳乙	 鄭夢準(36) 75년 商科大學卒 無所屬·現代重工業 慶南 蔚山東 會長	 姜在涉(40) 74년 法科大學卒 民主·서울高檢檢사 全國區	 崔箕善(43) 73년 法科大學卒 民主·정당인 京畿 富川南	 李鍾贊(51) 72년 行政大學院卒 民主·前院內總務 서울 鍾路

母校와 後輩에 바란다



나는 가끔 종로의서
 나는 여가서 사랑하
 는 후배들에게 술치하
 게 묻고 따지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설 자
 리를 다시 대보자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재
 연이다.

II

정일 것이다. 『잡 되오라. 母校의 ?』 『工夫를 잘 하라. 後輩들이여!』 가 우리의 유일한 열원일 뿐이다. 「데모」로 서울 大學校는 병든 것이 아닌가 했는 데, 그정도로 그정으 다 행이다.

다. 영어로된 冊子가 작혔을 줄여 보기를 지한 보다. 많은 것이 보였지만, 전공별로 보면 人文, 社會科學方面의 著書는 淸신뿐이지 文科는 道에 達하지 못해서 哲學, 理學, 言語學등을 따져 보아도 大學生들에게 알 심것 勸하고 싶은 것이 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을처럼 좋은 못쳐서
선거구민의 70~80%이
상의 표를 받을 줄 수 없
었던 것이 民主·民主

양광을 함께 지닌 경
산도 사람들의 고민아
나나를 받든다. 물을
물치기로 충성도도 같
았다. 명청도 많지 않게
있다. 이면엔 원가보
여졌으나, 여러동원들의
일투려 내앞에서 놀라
고의 되돌아왔다. 원일

은 무슨 웬일이냐. 경
산도 전라가 하나씩
위짜니까. 이렇다간 안
되겠다. 싶어 명청인 단
게 뒤늦게사 마을 다
잡고 J P한테 몰아준
것 아니겠다. 이게 모
두 영호남사람 탓이지
뵈가. 충청도 동료가 맞
받아치며 하하 웃어버
렸다.

이변의 「지엄감정」이
만들어낸것은 「地域黨」
뿐 아니라, 또 하나 在野
운동권 출신들을 여러
명 당선지지를 들추
있었다. 그들 거의가호
남출신 平民후보들이었다.
그중엔 서울대출신자
또는 제직 복학자들도
있다. 오랜제철 韓院의
의 고를을 전다. 두우
늘에 이쁜 동문회
들이기에, 우리母校 서
울대의 현실이 다시금
가슴아프게 눈물을 가

로 만든다. 4. 19 이후 30년까지의 데모로 每學期를 지내는 시위의 본. 운동권基地로 불리 지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나'를 묻는것조차 우순간 쇠고랑을 차아차

[illegible]

학술의 殿堂、學問의 數個國語 실력、

『조선의 새시대』는

합쳐 되질래야 아니겠네. 내 인생도 헛되게 끝나지는 않으니구나. 이만하면 나 자신도 잘 지만, 다른 사람도 설움했다고 하늘 쳐다 보며 소리치른 것도 참

보게 후배, 내가 그놈을 왜 서울대에 보내놨냐. 단치 후배가 미급일세 차라리 내열에 두고도 방해할 열 보내면 안 되나. 시킬것을 맡일세.

만들 가지고 친구에게
 (가)으로, 친구에게
 교제도 없고, 공부하던
 것이다. 성품은 했지만
 발음만 엉망이 되었다.
 「친구와 함께」를 아
 베르 메스 이드 (av-
 ec mes is) } 라
 고 하고 「이제 메
 미」를 불렀던 것이다.
 나는 화성 때 국어학
 계 열 가지였고, 왜 반
 지내는지?』

의先驅者돼야
취야서울大人

기'가 되지만, 대학생때
언어의 습은 교수가
「朝鮮語學」을 뜻한다
는 것은 언어학을 해
아 한다는 것이 된다
는 말이야, 佛語를 모
르고 朝鮮語學을 연구
하는 것은 말이 되
지 않아, 차라리 特科
를 해서 道知事를 바
라게...」
나는 이 말에 분개
다.
한번 香港大學서
러 3월 초 香港에
착하니 해안의 여학
생으로 안내되었다.
집에 들어서자 온
이 타자기 소리가
부는 것 같이 요란해
사무원에게,
이 전공이지만 좋은
수 지도로 하문의
바른 길을 걸은 것

머리가 숙일 것이다.
다음에 연구실에 들
어서면 거기에 기거하
고 있는 인간이 모두
연구하는 신성하고 존

III

우리의 모교인 서울
大學校의 인상은
어디에서든 그 교
門을 通過하는
사람
학생이 그대로
아카데
미즘의 상징적
물건으로
있으면 한낱
학問연구와
과학의
발견을

호인 박민지

지 않아요!
그들이 간 뒤 나는
느끼고 만 것이 남의나
라 여대생은 봄 발화
에도 꽃무늬 열을 대
리고 있는데, 우리 새
화생이 거칠게 되지 않
는다면 모든 것이 진
실에 배반하고 있는 셈

그랬더니 모두 놀라
는 기색으로
"이렇게 밤을 새우
다 싶이 리포트와 논
문을 짜지 않으면 진
답을 못하는데요? 한
국대학생은 볼 법하
를 놀고 지내니까?"
나는 여기서 질리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
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대학생도 볼 법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李錫均 (46년) 工
大卒・母校
名譽教授
▲金鳳均 (46년) 工
大卒・母校
名譽教授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申泰煥 (36년) 商
大卒・前母
校總長・學
術院元老會
員
▲金鍾大 (41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田
皮革會會長
▲趙要翰 (53년) 文理大卒・
崇實大學원장
▲宋三錫 (52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南惠祐 (56년) 大
學院卒・實
業協會總長
▲李惠祖 (57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金煥謙 (58년) 商
大卒・本會
理事・韓國
產業技術振
興協會會長
▲李斗讓 (64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保
健社會部次
官
▲吳寅賢 (64년) 商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黃寅性 (65년) 行
政大學院卒
本會理事・
本會副會長
▲金宇基 (66년) 醫
大卒・母校
校醫
▲金永一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大韓
證券協會
▲金錫珠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金融
通運營業委
員
▲徐基源 (54년) 商
大卒・本會
理事・小
說家・文藝
振興院院長
▲金善弘 (55년) 工
大卒・本會
副會長・興
亞產業社
▲南廣祐 (50년) 文
理大卒・仁
荷大業會

靜動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원에
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
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變動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
다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通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702) 2233-5

▲黃英奎 (56년) 法
大卒・太
平洋化學社
▲李判永 (57년) 商
大卒・信用
保證基金創
理
▲洪性佐 (57년) 商
大卒・信用
保證基金創
理

▲辛世浩 (60년) 師
大卒・本會
理事・韓國
教育開發院
▲白重英 (61년) 工
大卒・本會
理事・韓國
教育開發院

▲金仁煥 (60년) 法
大卒・東洋
폴리에스터
社社長
▲尹明老 (60년) 美
大卒・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白世民 (67년) 醫
大卒・仁
濟大學院
▲李忠熙 (68년) 文
理大卒・本
會理事・本
會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東錫 (60년) 文理大卒・
駐美大使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均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金煥成 (42년) 商
大卒・本會
顧問・大
宇會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李丙敦 (80년) 法
大卒・辯護
士・本會
理事・本會
副會長

[illegible]

새로나온 비타민群

健康교실 13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우리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도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群이 개발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강생 여러분, 이번 교실에서는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群이 개발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명도, 조급한 마음...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群이 개발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대변의 색깔이 변하면, 이는 어떤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변이 붉어지면 이는 소화기관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대변이 흰색이면 이는 담낭이나 췌장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살아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李朝 5백년의 哀歡지닌 白磁 陶工의 열이 生命感으로 약동

기를 바라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青磁가 갖는 季節感

金 守 經
(63년 曲大卒 · 母校曲大교수)

한편, 대변의 색깔이 변하면, 이는 어떤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변이 붉어지면 이는 소화기관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대변이 흰색이면 이는 담낭이나 췌장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年會費 내주시분

※ 人名 밑의 괄호 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 金正植 (5) ▲ 정은준 (6)

▲ 金正植 (5) ▲ 정은준 (6)

[illegible]

제 30대 총학생회 정 : 부회장에 기호1 全相勳
·梁俊碩후보가 48·3%의 지지율을 획득, 백조의 지지율은 金重基·俞在錫후보를 6백58표 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예상과 달리 학 정도도 유의없이 각계전층 보인 이번 선거는 투표결과 총 53·9%의 지지율을 얻었다. 당선자는 1학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